



## 연꽃

김도향/명상음악가

**만**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내 멋에 산다'라는 말이 있다. 내 멋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욕망에 끌려 살면서 사람들은 내 멋에 산다고들 한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욕망에 끌려 살면서 어떻게 '나'의 멋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내 멋에 산다'는 말보다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욕망의 멋에 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욕망들,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등에 빠져 정신없이 나도 모르는 것에 끌려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어찌 나일 수 있겠는가? 물론 커다란 시각에서 보면 내가 아는 나부터 나도 모르는 나까지가 모두 나일 수밖에 없지만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은 전부 허깨비다.

요즘 젊은이들은 '멋있게 살다 죽을 거야'라는 의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굵고 짧게 화끈하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다 간다는 말인지 한번 짚어볼 일이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앞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분명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나 정신차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만 있다면 그대로 그 찰나, 그 순간이 찰나이고 영원이고 동시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것은 정신을 잃고 살았을 때 느껴지는 현상이다.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살 수만 있다면 살아 있는 이 순간이 그대로 영원이다.

사는 데 있어서 멋이란 무엇인가? 멋있게 산다?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멋있는 집에 살며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정말 멋이란 무엇일까?

내가 멋을 부리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은 나에게서 진정한 멋을 못 느낀다. 또 나를 멋있게 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작용을 할까? 모두 나만의 착각이다.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운전사의 시중을 받으며 외제 차에 오르고, 또 차에 오를 땐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준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엔 그렇게 되어 있는 자신의 위치가 친구인 나의 눈에 좀 더 멋있게, 훌륭하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나의 눈엔 단순한 오만으로 보일 뿐이다. 마침 지나가던 걸인이 외제 차를 발로 툭 차고 욕을 하며 지나간다. 순간 나는 그 친구의 착각하는 마음이 느껴져 마치 바보 같은 어린애를 보는 것 같아 마음속이 씩씩했다.

그러나 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을 보았다. 소백산 기슭의 조그만 절에 사는 스님인데 이 스님은 차를 마실 때마다 해가 지길 기다려 연못으로 가 연꽃이 꽃잎을 오므리기 전에 작설차가 담겨 있는 조그만 형겅 주머니를 꽃잎 속에 넣어 두었다가 아침에 연꽃이 활짝 열려질 때 형겅 주머니를 꺼내어 차를 타서 마신다. 연꽃의 향기를 차에 타서 마시는 그 멋들어짐은 솔직히 말해서 사치스러운 정도다.

세속의 멋과 비교할 때 너무나 멋진 그 스님의 생활에 그 정신적 풍요로움에서 오는 진한 향기를 말할 수 있었다. PPFK